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개막을 사흘 앞두고 10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입택 광주 동구청장(사진 가운데)과 댄스팀·버스킹팀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추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썩들썩' 충장로는 축제다

17일까지 '버스커즈 월드컵' 47개국 539개팀 참여 총상금 1억9400만원...전 세계 음악인들 열띤 경쟁

광주 충장로 곳곳이 외국 음악인들의 연주와 노래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광주 충장축제의 글로벌 프로젝트 '버스커즈 월드컵' 개최에 따라 전 세계 음악인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곳곳이 북적이고 있다. 특히 버스커즈 월드컵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 버스커들이 주 무대인 5·18민주광장 인근의 충장로 곳곳에서 노래하면서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버스커즈 월드컵은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글로벌 버스킹 대회로,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5·18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을 무대로 진행된다. 특히 총 상금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억 9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걸리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의 열띤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버스커즈 월드컵 공연뿐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 버스커즈 프리존 무대가 설치돼 곳곳에서 광주를 찾는 전세계 버스커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10일 오후 1시계 동구 충장로에는 버스커즈 월드컵을 위해 문화전당 일대를 찾은 외국인들의 노래소리로 가득했다. 충장우체국과 아트박스 광주점 인근, K-팝 거리, 옛 런던악구 사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자리잡은 외국인들은 기타와 노래로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냈다.

K-팝 거리에서 노래하던 오스트레일리아 가수 'Ben Zamsz'는 기타를 종류별로 들고 흥겨운 팝송을 불렀다. 약 5곡을 쉬지 않고 연이어 불러 지칠 법도 했지만, 하나 둘 모여드는 시민들의 관심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흥겹게 박수를 치거나 '호우' 하고 소리 지르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기타에 적힌 가수의 정보를 카메라로 찍어가거나 기타 가방에 고깃간 종이 돈을 넣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manso muneco' 팀은 목에 '버스커즈 월드컵' 목걸이를 걸고 목청이 나가도록 노래 불렀다. 세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버스커즈 월드컵을 알게 됐다. 광주에는 처음 왔다. 원래도 한국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트박스 앞에서 노래하던 밴드 그룹 'Wild Im Wald'는 테일러스위프트, 빌리아일리시 등 국내에 잘 알려진 팝 가수의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버스커즈 월드컵을 마친 뒤, 18일에 돌아간다는 이들은 행사에서 만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소중하게 담았다.

이날 외국 버스커들의 무대를 감상하던 이성현(27)씨는 "골목 골목마다 외국 가수 목소리가 울려 퍼져 생소하기도 하고, 꼭 외국에 온 것 같아 재미있다. 충장로에서 다양한 국가의 가수들을 만나고 다양한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 이색적인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커즈 월드컵은 온라인 예선에만 47개국 539개팀이 참여했다. 오는 16일까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선에는 영국과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등 25개국 120개팀 327명이 참가한다. 무대는 가요, 팝, 국악, 블루스, 기타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단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송정역 증축 규모 더 커진다

조오섭 의원 "이용객 수 증가 예상...국토부와 협의중"

광주 송정역 증축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장래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평택~오송 복복선, 인천~수원발 KTX 노선 신설 등으로 이용객 수가 애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차 증축계획'의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신규 노선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더 큰 규모의 추가 증축을 위한 '3차 추가증축계획'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애초 광주송정역의 이용 수요가 하루 1만7052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362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8대, 에스컬레이터 16대, 주차장 597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설개선 타당성 검토 결과 장래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더 증가한 하루 2만 2356명으로 예상되자 대합실 면적을 1287㎡ 추가해 2760㎡로 확장하기 위해 사업비 284억원을 추가, 총 사업비 646억원을 투입하는 '1차 추가증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설계를 새로 진행했다.

이어 '2차 추가증축계획'을 세우며 대합실 면적을 3250㎡로 더 키워 편의시설, 역무원 공간 등을 더 늘리고 엘리베이터 2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기존 안에 추가했다.

여기에 2024년 평택~오송 복복선 및 인천~수원발 KTX가 개통돼 이용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철도공단은 용역설계를 일시 정지하고 2차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3차 추가증축계획'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철도공단은 이용수요를 재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사업비 규모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광주시민과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벨문학상,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노벨평화상, 리 권위주의 맞선 인권운동가·시민단체

올해 노벨문학상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노벨평화상은 러시아 권위주의에 맞선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 등이 수상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역대 115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작가 아니 에르노(82·프랑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르노는 여성으로서 겪은 자전적 경험을 통해 인간 심리를 고찰하고, 이를 치밀하게 표현해온 프랑스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다. 그는 전체 119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17번째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단순한 열정', '사건', '세월' 등이 있다.

노벨문학상은 과학 분야 노벨상과 달리 2~3명이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드물다. 문학상 공동수상은 1904·1917·1966·1974년 등 4차례가 전부였다. 제1·2차 세계대전 기간 등 7차례(1914년, 1918년, 1935년, 1940~1943년)에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 등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 1명과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사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



아니 에르노

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 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어진 전쟁과 관련된 국가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철권 통치하는 벨라루스에서 활동해왔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다.

CCL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범죄를 비롯한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68개 국가·지역 무비자 관광 오늘부터 재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국 등 전 세계 68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11월부터 재개한다.

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 친족 방문, 견학, 시찰, 단기 상용(商用)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것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제도의 효력을 중단했으며 다소의 시차를 두고 이런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온 입국자 수 상한선을 11월부터 폐지하고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별 자유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입

국 규제를 완화한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백신을 세 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는 일본행 항공기 탑승 전(출발 72시간 이내) 검사도 면제된다.

백신 3회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도착 후 검사와 입국 후 격리는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연합뉴스

고졸 조대부고 2022 조대부고인문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 일시: 2022. 10. 16(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태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경태

특수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010-3605-5000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사절.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강철주(610909-XXXXXX)
· 최종주소: 장흥시 영지길 14-3(영지동)
· 동행가족: 전남 나주시 대동면 대항길 40

피상속인 방 강철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원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노900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11일

· 상속인: 1. 강세현(740102-XXXXXX) 광주 동구 독립로 376번길 28(계림동)
2. 강국일(709013-XXXXXX) 광주 북구 효동로 55, 1동 201호 (문흥동, 천안아파트)
3. 강현일(840105-XXXXXX) 광주 북구 광림길61번길 22-8(두암동)
· 신고기간: 2022. 10. 11. ~ 2022. 12. 2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2. 강국일의 주소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이하 김아라 한도와 주식회사 원이앤씨 (이하 올이 올이 한다) 2022년 10월 07일자 개회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의(2)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전가공사(원한-00085)부분을 분할하고 그 분할된 부분과 (2) 주식회사 원이앤씨와 합병하고 (3) (4) (5)은 존속하며 합병제530조의 9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됨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 영도대상: 전가공사(원한-00085)
· "김"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062-373-6990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로491, 703호 (마북동, 동양트윈스아파트)
대표이사 이경태
· "올" 주식회사 원이앤씨 061-335-699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면로4번길 17-9(서빙동)
대표이사 윤상돈

합수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은해기업 (이하 "김"이라고 함)과 주식회사 이메이치 (이하 "올"이라고 함)는 2022. 10. 10. 에 양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김"은 "올"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무무를 승계하고, "올"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 (합병법인) 주식회사 은해기업
광주광역시 광안구 평동산본로 14(용동)
대표이사 나용근

"올" (합병법인) 주식회사 이메이치
광주광역시 광안구 평동산본로 225-38(용동)
대표이사 나용근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김순덕(560813-XXXXXX)
· 최종주소: 광주 북구 중문로 55, 302동 401호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방 김순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원주지방법원 2022노1060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11일

· 상속인: 김관중(560813-XXXXXX)
광주 북구 금계로 48-4 (북동)
· 신고기간: 2022. 10. 11. ~ 2022. 12. 21.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관중의 주소

산행안내

10월15일(토)

▲광주호산회 10월15일(토) (설악산 울림골) 오전 02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롯데백화점 03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